

# 가슴을 울리는 피아니스트 김지윤

“

유리컵 같은 연주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음악을 느낄 수 있도록요.

”



“매번 연주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연주이자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이 순간에 몰입하려고 합니다.”

“음악과 피아노는 제 삶의 소명이에요. 피아노를 잘 치기 보다는 그저 단 한 분에게라도 위로가 되고 단 1초라도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바로 그 것이 제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 이유일거예요. 저도 받았기 때문에 그저 돌려 주는 것뿐입니다.”

4살 때부터 시작해서 34년간을 피아노와 살아온 피아니스트 김지윤(38세)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8시 전에는 반드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을 시작한다. 평생을 하루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은 피아노를 친다는 그녀. 비단 피아노 앞이 아니어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잠을 잘때를 제외하고는 온통 피아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산책을 할 때도, 수영을 하면서도 마릿속으로 늘 피아노 연주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정신적 훈련을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인 ‘피아니스트로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 1998년 데뷔, 평생 피아니스트로서 세상 섬기고 싶어 2016년과 2018년, 샌디에이고에서 두개의 앨범 출시 관객층 두터워 전국 어디든 고정 팬들 찾아와

김지윤 씨는 1998년 피아니스트로 데뷔했고, 작년 12월에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전석을 매진시킨 중견 피아니스트이다. 주류 음악계에서 '빛나는 표현력과 감성적인 연주'로 마음을 울리는 피아니스트라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중부와 동부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2015년 샌디에이고를 방문했다가 한눈에 반해 아예 홈 베이스를 옮겼고 샌디에이고의 로컬 TV와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 요청이 이어지며 LA,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지역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샌디에이고로 온 뒤인 2016년 음반 제작사인'나무스 클래식스(Namus Classics)'를 통해 그녀의 앵콜곡을 수록한 첫 앨범 '10 More Minuts'을 발매했고 이를 기해 미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2017년에는 '베버리힐즈 내셔널 콩쿨'에 입상해 호평을 받았

으며, 시카고의 유명 클래식 채널인 WFMT 98.7 라디오를 통해 시카고와 미국 전역에 그녀의 솔로 연주가 생방송 되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 두 번째 앨범 'Over, Above, Beyond'를 출시한다. 이에 맞추어 12월9일 발매 기념 첫 연주회를 이곳 샌디에이고에서 갖는다. 이를 기점으로 내년 한 해 동안 미시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 할 계획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신문섭씨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연주를 선보일 계획이다. 뉴욕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신문섭씨는 한국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 여러 단체들과 협업 및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다. 김지윤씨는 "그동안 피아노만으로 관객들과 소통해왔다면, 이번에는 삽화를 통해 시각적인 요소를 덧붙여 더욱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도전인 만큼 설레임도 크다"고 벅찬 감동을 보였다.

더불어 내년 3월에는 미국 3대 발레단 중의 하나인 조프리 발레단(The Joffrey Ballet)의 샌디에이고 공연과 산타바바라 공연에 피아니스트로 초청돼 협연할 예정이다. <P50에 이어서>



## OVER. ABOVE. BEYOND. JEEYOON KIM, PIANO

- |       |   |       |
|-------|---|-------|
| 1.    | Forgotten Melodies I, Op. 38, No. 8, Coda Alla<br>Reminiscenza, Op. 38, Nikolay Medtner                               | 3:06  |
| 2.    | Wedding Day at Troldhaugen, Op. 65, No. 6, Edvard Grieg   | 5:52  |
| 3.    | Nocturne in D-flat major, Op. 27, No. 2, Frédéric Chopin  | 5:52  |
| 4-15. | Variations on an original theme, Op. 21, No. 1<br>(philosophical variation), Johannes Brahms                          | 17:14 |
| 16.   | 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 Maurice Ravel  | 6:07  |
| 17.   | Golliwogg's Cake Walk from Children's Corner, L. 113,<br>Claude Debussy   | 3:02  |
| 18.   | Nocturne in G-flat major, Op. 70, No. 1, Giuseppe Martucci  | 5:45  |
| 19.   | Twelve Variations on "Ah, vous dirai-je, Maman" ("Twinkle,<br>Twinkle, Little Star"), K. 265, Wolfgang Amadeus Mozart | 8:33  |

Total Time 55:36

Ryan Streber, Producer and Engineer  
Allen T. Brown, Executive Producer  
Barbara Van Driel, Executive Producer



### 사랑받고 사랑하고 소통하며 쓰임 받는 사람

김지윤 씨 독주회에서는 무대 위에 피아노와 마이크는 있지만 프로그램과 인터미션(intermission, 중간휴식시간)은 없다. 매 연주곡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얘기하며 연주 하는 그녀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피아노를 치고 마이크를 통해 관객과 얘기하는 뮤지션인 것이다. 관객들은 비로소 연주가 끝나고 나서야 프로그램을 받아 보고 연주한 곡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항상 관객들과 소통하길 원하는 그녀가 만들어낸 독창적인 진행 방법이다. 분위기가 엄숙한 클래식 공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전형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클래식 공연 형식에 비춰 보면 가볍게 보일 수도 있지만 김지윤 씨의 공연을 따라 다니는 팬들은 이점을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 꼽는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무겁게 들어야 할게 아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이것이 그녀가 추구하는 음악이다.

### 관객들과 여행을 떠나는 피아니스트

김지윤 씨는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길 원한다. 실제로 연주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녀의 고정 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 "김지윤 씨 연주를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 그만큼 김지윤씨의 연주는 심금을 울리는 감동과 힐링이 있어 또 찾게 된다는 얘기다.

"제 연주를 들으러 오는 분들에게 늘 감사드리요. 정말 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기교가 뛰어난 연주보다는 그저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 제게 주신 재능을 그대로 관객들에게 보여 드리고 싶어요. 피아노 선율이 그저 투명한 유리컵을 통해 여과 없이 들리는 분들에게 전해 지길 바랍니다. 제가 바로 그 유리컵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받은 음악적 재능을 자신이 통로가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는 그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하다.

### 교육과정

#### 부산대학교 수석 입학, 졸업

#### 인디애나 주립대 석·박사 수석졸업

부산예고를 나와 부산대학교 음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인디애나주립대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아가며 역시 수석으로 졸업했다. 또 최고로 평가되어지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Distinction을 박사과정에 함께 받았다. 이를 계기로 박사 과정 중인 5년간 Graduate Instructor로서 인디애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2009년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버틀러 대학(Butler University)에서 Adjunct Faculty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도 버틀러 대학에서 피아노 페다고지(교육학) 석사 학위를 또 받았다.

뉴욕, 인디애나, 위스콘신 등지의 음악 워크샵에 초청되어 피아노 교육학과 관련된 강연을 통해 연주가 아닌 새 영역에 뛰어 들기도 했으며, 각종 콩쿨대회 등에서 심사위원으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 연주경력

#### 모차르트 페스티벌 초청공연

#### 샌디에이고 심포니 초청공연 등

샌디에이고 클래식 음악의 양대 산맥인 '샌디에이고 심포니(San Diego Symphony Chamber Music Series)'와 '라호야 뮤직 소사이어티(La Jolla Music Society)'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뮤직 소사이어티(San Francisco Chamber Music Society)' 등 유명 소사이어티에 초청돼 독주회를 가졌고,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축제인 매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리는 '모차르트 페스티벌(the Mozarteum Festival in Salzburg)'에서 독주회를 갖기도 했다.

이외에도 'Graves Recital Hall in Columbus' 'Wheeler Concert Hall at the University of Evansville' 'Judson Park Auditorium in Cleveland' 등에서 성황리에 독주회를 마쳤다. 더불어 퍼듀 대학교 오케스트라와 함께 솔로 연주자로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를 연주하는 영광을 안기도했다. [글: 김미지]



### Over, Above, Beyond (저 너머, 저 위로, 그리고 저 멀리)

#### 두 번째 앨범 출시 기념연주회 12월 9일 오후 3시

그녀의 새 앨범 'Over, Above, Beyond'의 출시에 맞춰 12월9일 오후 3시, 샌디에이고에서 출시 기념 첫 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앨범의 제목은 본인 이 날고 있으면서 듣는 이들도 함께 날자는 뜻에서 김지윤씨 본인이 직접 정했다.

"우리 한인들은 클래식 음악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어요, 관련 지식이 없어도 편하게 듣고 느낄 수 있는 연주회가 될 것입니다"

▶장소: Scripps Research Auditorium - The Auditorium at TRSI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10620 John J Hopkins Dr, SD)

▶예매: <https://jyk.ticketleap.com/over-above-beyond> ▶티켓: \$30